



#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 뉴스초점

### 사료원료 수급에 비상

#### 정부, 다각적인 방법 모색

배합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환율이 2천원선까지 치솟아 사실상 원료확보에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료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곡물상들이 지난 11월초부터 연지급 신용장(USANCE) 개설에 의한 거래를 취소하고 대금즉시결제(SIT) 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위해 신용장 개설을 거부하고 있어 농협이 6천5백만달러를 특별지원 하는가 하면, 재경원의 승인을 얻어 미농무부 일반판매관리자금(GSM102)을 도입 미국 농산물 신용공사(CCC)의 보증으로 사료곡물을 수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 환율상승으로 사료값 인상

#### 생산비 가중에 따른 경쟁력 약화

양계업을 뒤흔들 수 있는 대변화가 IMF 한파를 타고 나타났음에도 양계업계는 어떤 자구책도 마련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연일 환율이 급상승하여 환차손에 따른 사료 가격의 인상이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약 40% 넘게 인상이 되었다. 여기에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자금력이 없는 일부 농가들은 사료공급이 중단되어 입추를 포기했는가 하면 조기도태를 서둘러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양계업 성장 둔화 예상  
육계업 타격 심할 듯**

양계업의 성장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의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어 지난 해에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환율의 폭등으로 사료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되면서 생산비가 상승한데다가 구매시 현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거래조건의 변화로 상당수의 양계인들이 자금난에 봉착해 사육을 줄이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 특히 육계부분은 타 부문에 비해 외상거래가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변동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규모 산란농장 도산  
도쇼쿠 6천억엔대 부도**

일본 최대 산란계 사육 농장을 경영해 온 도쇼쿠(東食)사가 지난달 경영이 악화되어 약 6천억엔대의 규모로 부도를 내 일본 채란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엔화의 절하와 경제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경제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채란업도 일본 도쇼쿠사의 부도사건을 예의 깊게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계산물시세 구정 이후  
변화 폭 클 듯**

사료가격의 대폭적인 인상과 소비위축으로 양계산물에 대한 공급과 소비에 불균형이 초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계산물 수요가 연말과 연초에도 그런대로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

료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수가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구정 이후에는 출하량이 급증하여 출하기는 현재 보다도 훨씬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다가 생산량이 급감하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 물가 폭 상승보다 더 출하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질병발생 은폐능가  
자금회수 등 강력대처**

농림부는 지난 5일 축산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시책 평가 및 개선방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농림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질병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질병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가축질병 발생 사실을 숨기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정책자금 지원을 불허하고, 기대출된 자금도 조기에 회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위기 특별대책 건의  
용자상환 연기 요청**

본회는 경제위기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현찰구매를 해야 하는 점으로 양계농가마다 자금난이 심해 도산 위기에 몰려있음을 지적하고 각종 정책 지원자금의 상환을 사료 공급이 원활할 때까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연장해 줄 것을 거의하였다.

또한 노계수매 비축자금을 대폭 지원하여 난가안정에 안전을 기해줄 것도 건의하였다. **양계**